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5주일
제33권 33호(다해) 2013.7.14

[묵상]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율법의 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과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할 때
저절로 생기는 가엾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제,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서 이는 것,
그것을 행하는 이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과 가장 가까운 신의 아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문화

▶ 문화들을 위한 위대한 코드인 성경

110).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세속화된 영역에서나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56) 성경에는 인류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간학적, 철학적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문화들을 위한 위대한 코드로 보는 개념은 온전히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와 대학의 성경 연구

111). 학교와 대학은 하느님의 말씀과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목자들은 이러한 장소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길러 줌으로써 거기에서 오늘날에도 문화를 위하여 풍요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가톨릭 집단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 기관들은 문화와 교육을 진흥하는데에 고유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종교 교사들을 세심하게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신앙의 메시지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과거와 현재의 선입견들을 극복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다양하게 예술적으로 표현된 성경

112). 하느님의 말씀과 문화의 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예술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위대한 전통은 언제나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표현들, 예를 들어 조형 예술과 건축, 문학, 음악 등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동방 전통에서 시작하여 온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는 이콘으로 표현된 고대의 언어도 생각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과 함께 온 교회는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던, "아름다움과 사랑에 빠졌던" 예술가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경탄을 표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들을 장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거행하며 우리의 전례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기여하였고, 그들가운데 많은 이들은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실재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각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관할 기관들에, 교회 안에서 예술가들에게 교회와 교도권의 살아 있는 전통에 비추어 본 성경에 관한 확고한 양성을 촉진하기를 권고합니다. <◆계속>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신계현 모니카 & 신성호 요셉, 김루빈, 최보나, 이범주
주 일	(연)임현기 마르코, 이경용 야고보, 정운 요셉, 권복남 모니카, 전시웅 요한, 김금절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민희철 베드로, 송봉현 요셉, 송인현 바오로, 주용범 아브라함, 이용식 베드로
낮 미사	(생)이운조 클라라, 김호인 벨라멧다 & 주용순 모니카, 오세호 레이몬드, 오창애 안나, 안능주 바오로, 박개순 도미니코, 정정현 베네딕다 & 박명순 안나, 엄효수 벨라도,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30,10-14

화답송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가난한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마음에생기를돌우어라.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15-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 음 루카(Luke) 10,25-37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성호경	217	198
봉헌	255	265	249
성체	Above All	280	304
파견	368	234	218

핑계 없이 바로 지금 실천하세요!

옛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일이든지 핑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따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어찌하여 따 먹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계속해서 여자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자신을 꾀어 따 먹게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은 하느님으로부터 각각 벌을 받게 됩니다.(창세 3 참조)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서에 쓰인 하느님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터인데."(신명 30,12) 결국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석 사제들도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마태 27,42)

여기서도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핑계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강도에게 얻어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길거리에 방치된 시체와 접촉하였을 때는 죄를 짓고 부정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

겨 한동안 격리되어 참회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종교 행사를 주관할지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레위 21,1.11; 22,4-6 참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으로 소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농담이 발전해서 '머리가 나쁘면 당장 고생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적합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바로 지금'(right now)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 계명의 실천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계명을 들은 그 즉시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골로 1,16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사업을 지체할 그 어떤 핑계거리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사랑이야...

다투고 난 후 팽팽한 기싸움 중에 먼저 마음을 여는 쪽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급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더 보고픈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하게 됩니다. 더 그리운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주제표어 공모(백삼위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내용에 관하여 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성당간 천교,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감사미사

- 일시 : 토요일특전미사(13일), 주일(14일) 아침미사, 낮미사
- 미사집전 : 나영호 배드로 신부님
(한국외방선교회 후원국장)

◆ 2013년~2014년 소공동체 임원 등 임명장 수여

- 일시 : 오늘 주일(14일) 낮미사 중
- 소공동체 임원명단 : 후보 5면 반모임표 참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박봉성 안드레아,
간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 매년 임명장 제작을 맡아 수고해주시는 문두현 스테파노님께 감사드립니다.

◆ 대건회 총회 및 단합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4일) 오후 5시
- 장소 : 서성용 배드로 신임회장 댁 ☎(310)686-3587

◆ 남가주 남성 제37차 꾸르실료...빨랑카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8일(목)~21일(주일) 포모나 꾸르실료 피정센터
- 본당 수강자 : 박개순 도미니코,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당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주일학교 "Praise Night"(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19일(금) 오후 7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7월26일~28일)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르신 교우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시시오.
- 문의 : 황데이빗 주일학교 음악담당교사 ☎(310)613-9116

◆ 은혜의 밤

- 일시 : 7월20일(토) 오후 8시(특전미사후)
- 강사 : 박효철 배네딕토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
- 내용 : 미사, 특강, 찬미, 안수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요셉회 임시총회 및 7월모임 안내

- 일시 : 21일(주일) 낮 미사후 강당
- 안건 : 회칙 개정 및 간부 인준
- 특별점심 메뉴 : 부부동반 참석 환영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코 5,34)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 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213)435-7570
- 준비물 : 도시락과 생수는 각자 준비하십시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사목위원, 제단체장 임원명단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2013~2014년 새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명단(e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을 홍보분과 e메일 103skcc@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십시오

6월23일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께서 주례하신 백삼위 본당 견진성사의 사진이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7월14일(주일) : 하버/카슨1,2반(비빔밥 \$3)
- 7월21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윤철	고천용	김광자	김기정	김병태	김선제	김영경
	김영길	김옥보	김옥찬	김원모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김형순	남명자	노찬슬	노혜숙	모은기	민형기	박근식
	박씨니	박진수	방정복	성필영	송재훈	신경훈	오수인
	오일순	유근태	윤선희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상석
	이용무	이은록	임연조	장영우	전정일	전정자	정남형
	정동호	정병훈	주용순	최기남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한혁수	현석주	홍광선	황학수	합계 : \$5,310		

성전헌금	강윤철	고천용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주량	남명자	노찬슬	노혜숙	모은기	박씨니
	방정복	성필영	신경훈	오수인	윤선희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상석	이용무	이은록	장영우	전정일	정동호
	주용순	최기남	최원석	최재은	최지영	한혁수	홍광선
합계 : \$2,949.25							

주일미사 헌금 : \$2,553

2차헌금 : \$1,034

감사헌금 : 서예반

공지사항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7월13일(토)부터 시작,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 출발 : 금요일 11시30분까지 성당 집합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7월20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 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 '청실 홍실'만남의 장

- 일시 : 8월11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 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정구평(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신청마감 : 8월10일,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213-675-0498 7/14(주일) 낮미사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4(주일) 낮미사후 토런스 팍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7/14(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3(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26-7348 7/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7/9(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804-7645	조정선 마리아 213-550-6653 7/12(금) 오후 7시 강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21(주일) 오전 10시 델손 팍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병우 마리노 784-0585 7/2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 구역 합동반모임 7/13(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합동 반모임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회장단 모임	
------------	--

천사가 불러준 노래 하나

수도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천국 바로 아랫동네요, 그곳에 사는 수녀님들은 영화에서처럼 청아한 목소리로 천상의 아리아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둘째치고, 성가대에 속할만한 목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래 부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하는 음치입니다.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 꼬마 천사가 제 맘에 새겨준 노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해도 해도 늘 같은 자리만 파고 있는 듯한 공부 때문에 지치고, 문화와 성격, 거기다 감정코드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 생활 때문에 힘든 때였습니다. 다들 잘살고 있는데 나만 엉망인 것 같아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서류 때문에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살짜리 조카가 엄마보다 먼저 수화기를 집어 든 것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녀 고모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조카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엄마 좀 바꿔줄래?” 당연히 ‘응’하고 엄마를 부를 줄 알았는데 어린 조카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고모, 내가 노래 불러줄게.” 하더니 말릴 틈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웅알이하듯 웅알웅알 혼자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멈출 수 없어 그냥 있긴 했지만, 조금씩 앞서 무슨 소린지 들리지도 않았습다. 귀에는 비싼 국제전화요금 올라가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래가 겨우 끝나자 얼른 조카를 달랬습니다. “정말 잘하네, 이제 엄마 바꿔줄래?” 이번에도 조카는 제 말을 못 들은 듯 대꾸했습니다. “고모, 다시 불러줄게.” 그러더니 그 긴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띄엄띄엄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번의 노래를 방해 없이 부른 조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아주 만족한 목소리로 “고모, 안녕!” 하더니, 수화기를 탁 놓아 버렸습니다. 끊어진 수화기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한참을 황망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이

의 작은 노랫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 왔습니다. 누군가 지치고 외로운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이는 것 같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새겨진 그 노래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생각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노래 한 자락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천상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다른 이를 위해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천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희 엠마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

천국의 모의고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긴장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직장인은 실적으로, 정치인은 투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로부터도 인성 등에 대해서는 평을 듣게 마련입니다. 솔하게 겪게 되는 평가 중에서 가장 큰 평가는 생을 마치고 난 뒤 하느님께서 내리는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직장상사가 내리는 평가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에는 소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객이 바뀌어서 사람이 하느님을 평가하는 오만함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뒤처지지 않으려 바쁘게 살다 보니 문득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곳이 이정표 없는 광야인 것 같은 불안함입니다. 여기에서 나이 들면서 더욱 세진 고집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의 합리화로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걸어온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핑계로 세상의 것을 필요보다 많이 움켜쥐려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불안할 땐 내 인생의 어디쯤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하느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치 수험생이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수준과 출제방향을 점검하듯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중간점검 같은 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천국가기 위한 모의고사라고나 할까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듯 내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평가는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신 앞에선 모두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하느님께 직접 여쭙보는 게 정석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일상에 지친 자신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찾아서는 굳이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돈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하느님은 멀리 있지 않고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기만 하면 때론 시원한 바람처럼, 때론 심해의 물결처럼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혹시 아니까? 친해진 하느님께서 천국가는 특별과외라도 해 주실지 말입니다.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시사정보팀장